

Contents

통계로 보는 국제물류

1. 미국 교통산업서비스지수(TSI), 사상 최고 기록

물류정책·산업동향

1. 정기선사, 신조 수요 증가에 따른 선박과잉 우려
2. 중국 JD.com·글로벌 유명브랜드·3PL, 중국 검역협회와 제휴
3. 텐마오, 이귀그룹에 3억 달러 재투자... 콜드체인 물류인프라 건설에 활용
4. 태국 정부, 물류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 확대 추진

명사 스피치

“발전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노선에 물류거점을 마련하고, 국내 수출기업과 시장을 개척한다면 국적선사들도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한국해운연합은 결성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 앞으로 선사 간 협력을 넘어 해운, 조선, 화주의 상생으로 확산될 수 있기를 바란다.”

김영춘 / 해양수산부 장관
(2017. 8. 8. / 한국해운연합(KSP) 공식 출범식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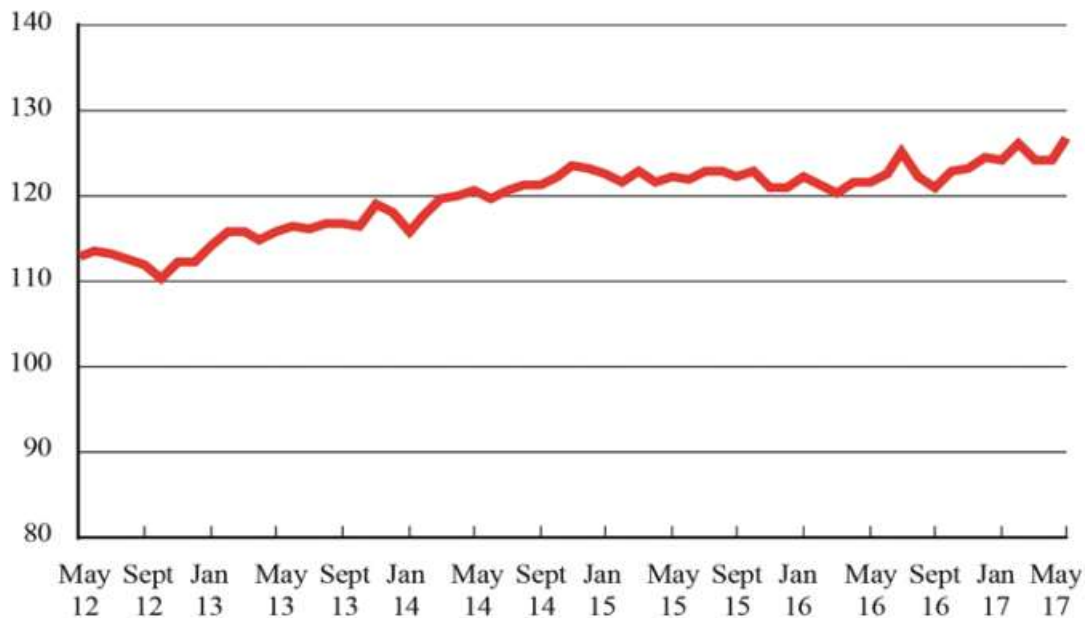




통계로 보는 국제물류

미국 교통산업서비스지수(TSI), 사상 최고 기록

2000-2017년도 미국 3PL 시장 규모

자료 : <http://www.truckinginfo.com>

- 미국 수송통계국(BTS)은 자국의 교통산업서비스지수(Transportation Service Index, TSI)가 올 4월에서 5월 사이 2.2% 상승했다고 밝힘
 - 이는 한 달 사이에 기록된 상승률 중 최대치로 지난 2011년 11월에서 12월 사이에 기록된 2.9% 증가를 이후 가장 큰 상승폭임
 - 지난 2월 126으로 최고 지수를 기록한 이후 올 5월 126.8로 최고 기록이 갱신됨
- 또한, 올 5월에 기록된 교통산업서비스지수는 최저치를 기록한 지난 2009년 4월 대비 33.9%나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전반적으로 모든 운송모드가 안정적으로 성장한데 따른 것으로, 특히 파이프라인 및 해상운송의 기여도가 높았던 것으로 나타남

참고자료 : www.logisticsmgmt.com, 2017.7.12.

신수용 전문연구원

051-797-4780, shinsy@kmi.re.kr



정기선사, 신조 수요 증가에 따른 선박과잉 우려

- 최근 선사들이 지속적으로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가들의 낙관론이 선박과잉 우려로 인해 약화됨
- 올해 상반기 동안에 14,000TEU급 이상의 신조선 26척이 인도됐으며 대부분의 선박은 아시아-유럽 항로에 투입될 예정임
 - 프랑스 해운분석기관 알파라이너에 따르면 해운업계의 전통적인 비수기 10월¹⁾ 이전에 적어도 일주일에 1척 이상 초대형 신규 선박이 인도될 것이라고 함
 - 예상보다 호조되는 해상운송 수요에 힘입어 일부 선사들은 신규 선박의 인도 날짜를 앞당기기도 했음
- 선사들은 성수기에 수요를 충분히 충족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의견을 갖고 있으며 이는 알파라이너 자료를 통해 뒷받침됨
 - 알파라이너에 따르면 현재 계선량은 176척. 472,995TEU로 최근 2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며 전체 선박 중 계선율은 2.3%에 불과함
 - 7월24일자 알파라이너 자료에 따르면 5,100-7,499TEU급 선박의 경우 7척만이 용선 가능하며 7,500-11,999TEU급 선박은 7척, 12,000TEU급 이상 선박은 1척만이 이용 가능함
- 그러나 성수기가 지나면 선박과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함
 - 알파라이너는 향후 5개월 동안 700,000TEU 이상 선박량이 새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공급량을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고 경고했음. 또한 연말까지 계선량이 1백만TEU 직전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언급함
- 2017년 4월 이후 침체된 폐선 시장은 IMO의 선박평형수처리장치 설치 의무화 규정이 연기²⁾됨에 따라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한편, 싱가포르의 조선·해운 전문 매체인 스플래시(Splash)에 따르면 프랑스 선사 CMA-CGM이 한국이나 중국 조선소에 22,000TEU급 선박을 발주할 예정이라고 함

■ 참고자료 : www.theloadstar.co.uk, 2017.8.2.

전우현 연구원

051-797-4615, jwh0321k@kmi.re.kr

1) 전통적으로 해운업계는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를 앞둔 3분기가 성수기이고, 10월 중국 국경절 이후에 비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됨.

2) IMO는 국제해역을 항행하는 상선 전체에 대해 선박평형수 처리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선박평형수 관리협약'을 채택, 오는 9월 8일 발효됨. 이 가운데 IMO는 설치기한을 기존 2022년에서 2024년으로 연장했음.

중국 JD.com·글로벌 유명브랜드·3PL, 중국 검역협회와 제휴

- 중국 전자상거래업체인 JD.com³⁾은 글로벌 유명브랜드 및 3PL업체와 공동으로 중국 검역협회(China Inspection and Quarantine Association)와 제휴를 체결함
 - 지난 8월 1일 발표된 이번 제휴는 중국 국경의 수입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한 통관을 진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월마트, 하기스(Huggies), 다논(Danone), 사사(SaSa), 라쿠텐(Rakuten), 이베이 등의 글로벌 브랜드와 Kuehne+Nagel 및 Agility(두 기업 모두 본사 스위스 소재) 같은 물류기업이 공동으로 참여
- 이번 제휴를 통해 중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보다 쉬운 추적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됨
 - 중국 내 수입화주들은 수입항 또는 상품종류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세관통관 절차에 대해 오랫동안 불평을 제기 해 왔음
 - 또한 규정(지침)변경은 주(지역)세관에 적용시키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게 되며, 이는 수입 절차를 복잡하게 하고 운송 지연 및 그에 따른 화주 비용을 발생시킴
 - 하지만 무엇보다 세관 규정(지침)의 해석문제와 함께 통관 중 화물에 대한 가시성(Visibility)이 상실되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음
- 따라서 제휴를 통해 기존의 JD.com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SKU(Stock Keeping Units)별 화물의 추적 능력을 향상시킬 계획임
 - 이는 수입절차 개선과 속도 향상 뿐 만 아니라 새로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품질에 민감한 중국인들에게 해당 플랫폼을 통해 판매되는 물품이 100% 수입제품임을 보장하는 등 세관 통과에 대한 투명성을 제공할 수 있음
- 최근 중국시장은 질적 성장과 함께 소비 행태가 더욱 거대하고 다양화되고 있으며, 수입제품의 수요도 증가 추세임
 - 현재 중국은 2억 3,600만명의 소비자를 통해 소비재, 신선식품 및 유아용품 등의 수입제품이 거래되고 있음
 - JD.com은 지난 2015년 “JD Worldwide” 시스템을 구축하여 온라인 시스템에서 해외 유명 수입제품을 판매자로부터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참고자료 : www.joc.com. 2017.8.4.

김보경 연구원

051-797-4674, kimb@kmi.re.kr

3) JD.com은 중국 “360buy”를 경영하던 류창동이 2004년 설립한 회사로 가전·PC·가구·의류·식품·도서 등의 상품을 취급하고 있음. 2014년에 나스닥에 상장되어, 2015년에는 중국 국내 인터넷 쇼핑물 시장 점유율의 56.3%를 차지함. 다수의 기업과 개별소비자를 연결하는 알리바바와 달리 자체 쇼핑물을 구축하여 우수한 제품군(특히 정품 절차를 거친 제품)을 취급하고 있으며, 고학력·고소득 고객군을 많이 확보하고 있음.

텐마오, 이귀그룹에 3억 달러 재투자... 콜드체인 물류인프라 건설에 활용

- SINA과학기술보에 따르면, 8월 3일 알리바바 그룹의 B2B 소매 플랫폼인 텐마오(天猫, Tmall)가 이귀그룹(Yiguo Group)에 3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하겠다고 밝힘
 - 이귀그룹의 이귀신선은 이번 투자를 통해 텐마오와의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향후 '텐마오 시장'(T-mall Supermarket)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힘
 - 이번 투자는 알리바바 그룹과 KKR 캐피탈이 참여했으며, 투자금은 안선다(Exfresh)의 콜드체인 물류 인프라 건설과 확장에 사용될 예정임
- 이귀신선은 이미 중국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콜드체인 택배플랫폼임
 - 현재 베이징, 광저우, 항저우, 우한, 청두, 시안, 선양, 지난, 푸저우 등 10대 대도시에서 콜드체인 물류 기지를 보유하고 있음
 - 그중 베이징, 상해, 광저우 그리고 청두에 있는 물류기지에서는 당일, 기타 200개가 넘는 도시는 익일 배송이 가능함
 - 알리바바그룹과 텐마오는 이미 이귀그룹에 3차례의 투자를 진행했고, 이귀그룹은 텐마오시장의 신선 채널을 운영하고 있음
- 알리바바그룹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귀신선과 텐마오시장이 지속적으로 융합될 것으로 기대되며, 브랜드업자에게 더 다양한 브랜드 운영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힘
 - 원산지 구매와 안전 등에 전문적인 관리가 가능한 공급사슬망 관리능력과 배송 능력 등이 한층 더 강화되어 최종적으로 전국 소비자들에게 양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 이귀그룹 대표는 이번 투자가 이귀신선이 텐마오 생태권에 더욱 융합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안선다의 콜드체인 물류인프라 발전을 가속화시켜 중국의 복합 콜드체인 물류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힘
 - 역동적인 물류 공급망 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자원 통합을 통해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힘

■ 참고자료 : news.hiapk.com, 2017.8.3.

공영덕 연구원

051-797-4778, ydkong6053@kmi.re.kr

태국 정부, 물류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 확대 추진

- 태국 정부는 최근 몇 년간 국내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최우선 과제로 선택한 바 있음
 - 태국은 지리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자리잡고 있어 무역, 물류 및 관광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과의 연결성이 높아 교통망의 요충지로서 충분한 이점을 제공할 수 있어 정부 차원의 주요 과제로 떠오름
 - 뿐만 아니라 라오스, 캄보디아, 중국 등과의 국경 운송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태국 전역에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 건설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계획 중임
 - 태국 산업부는 동부지역의 신흥 경제 회랑(Eastern Economic Corridor) 활성화를 위해 공항 확장, 항만 개발 등 향후 5년간 43억 달러에 이르는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를 검토 중임
- 이를 위해 도로, 철도, 항공, 항만 등 물류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했음
 - 2017년 태국 정부가 추진 중인 물류인프라 구축 시행계획은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태국 전 지역을 대상으로 36개의 프로젝트가 준비 중이며 규모는 약 252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인프라 건설에 따른 투자 자원 마련을 위해 10월 중 자국민을 대상으로 한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며 약 11억 달러의 재원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음
- 물류인프라 구축 시행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투자 장벽 및 규제를 완화시키고 투자를 용이하게 하는 등 다방면으로 지원할 방침임
 - 태국 투자청(BOI)은 투자 확대를 위해 법인세 감면, 기계류 및 원자재에 대한 수입 관세 면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개인 소득 공제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 중임
 - 뿐만 아니라 태국의 Prayuth Chanoch 총리는 자국민들에게 고속도로망 확충 및 태국-중국을 잇는 고속 철도 건설을 호소한 바 있음
- 태국 정부가 추진 중인 물류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는 향후 동남아시아 지역의 물류허브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됨
 - 태국은 주변 지역 및 세계 주요 국가의 물류허브로 성장한다는 기조하에 모든 산업의 물류비용을 20% 이상 절감하고 공급망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Manufacturing Logistics Master Plan 2017-2021'을 수립했음
 - 태국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본 시행계획은 물류허브로의 도약뿐만 아니라 디지털 공급사슬의 개발, 동부 지역 신흥 경제 회랑 및 산업 단지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물류인프라 구축 및 투자 확대가 계획 추진을 위한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언급함

■ 참고자료 : www.logasiamag.com, 2017.8.7.

김동환 연구원

051-797-4913, kdong@kmi.re.kr